

프랑스의 쓰레기 처리현황 및 NIMBY의 해결

김명수 / 프랑스 CEVART(Textile Recovery and Valuation Center)의 Vice Director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유럽의
쓰레기 처리 동향을

- ① 프랑스의 쓰레기 처리현황 및 NIMBY의 해결
- ② 유럽의 소각기술 현황
- ③ 유럽의 재활용기술 현황
- ④ 폐기물 종합관리 시스템 및 결언의 순으로 연재합니다.

환경과 관련된 프랑스 최초의 법령은 1810년에 나폴레옹 황제령으로 공포된 건강을 해치는 시설물들에 대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법이 발전되면서 1961년에 대기오염법, 1964년에 수자원관리법이 제정 발표되었다.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위기의식이 확산되면서 프랑스 정부는 1971년 환경부를 발족시켜 환경정책에 보다 거시적이고 확고한 조치를 강구하게 되었다.

초기 폐기물법은 1975년 제정된 폐기물의 제거와 재생을 명분화한 것으로 Pollueur(오

염 발생자)가 바로 Payeur(처리비용 지불자)라는 공식을 성립시키고 가정 쓰레기는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구체화시켰다. 이 법은 1991년 유럽환경법을 프랑스에 적용함으로써 보다 엄격한 환경기준으로 개정되었다.

이러한 법 추이에 한획을 긋는 '녹계획' 법이 1992년에 발표되었다. 이 법은 2002년까지 6000여개에 달하는 매립장을 봉쇄하고 허가된 1급 매립장에는 오직 사전 Inert처리를 한 '최종잔재물' 만 유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매립폐기물에 세금을 징수하여 이 재정을 기반으로 160개의 소각장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강화되는 법의 변천에 따라 폐기물처리 기술은 크게 개선되었으며 이와 함께 일반의 생활수준도 향상되고 다시 이에 맞추는 법의 강화 그리고 기술개선이란 경주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완벽한 폐기물 처리기술을 불완전에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선 '후회없는 효과적인 처리방법의 모색' 이 프랑스의 폐기물 처리정책의 기본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과는 달리 프랑스는 재생에 대한 애착보다는 소각에 거는 기대가 크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프랑스의 폐기물 처리개념을 발판으로 가정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 향후 전망과 NIMBY(Not In My Back Yard) 현상의 대처방법을 살펴본 후

필자 약력

1983년 한양대학교 자원공학과 졸업
1987년 프랑스 Grenoble II 대학에서 D. E. A.(Diplome d'étude Approfondie) 학위 받음
1991년 프랑스 Paris X III 대학에서 에너지 환경경제학으로 박사학위 받음

기술을 개발하였다.

〈표 1〉 유럽의 평균 쓰레기 구성비

구성 물질	%
금속	3~9
유리, 병	5~13
식물성, 동물성 음식찌꺼기	15~56
종이, 판지류	25~35
플라스틱류	3~6
작물	2~4
기타	4~32
계	100

한국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향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를 고찰해보자 한다.(주 : 인용되는 한국 관련 데이터는 1992년 8월 서울특별시 청소사업 본부에서 발행한 책자에서 발췌)

프랑스의 가정쓰레기 발생 현황

프랑스의 전체 폐기물 발생량은 연 5억 8천만톤으로 이중 농산물, 식료 폐기물이 전체의 69%인 4억톤을 차지하고 있고 그외 산업폐기물이 26%인 1억 5천만톤, 도시폐기물은 5%인 3천만톤이 발생되고 있다. 도시 폐기물은 또한 네종류로 구분되는데 순수하게 가정쓰레기라고 명명되는 폐기물은 이중 68%를 차지하는 2천 50만톤이고 그외 난잡한 쓰레기가 7백만톤, 잡초 등 녹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1백 50만톤, 단순 산업폐기물로 분류되는 폐기물(예를 들어 차량에서 발생되는 단순폐기물등)이 백만톤을 차지하고 있다.

가정쓰레기 발생량을 주민당 연평균으로 환산하여 보면 약 360kg(주민 일일당 약 1kg)으로 유럽의 다른 나라(이탈리아 300kg, 독일 240kg)보다는 발생량이 많은 편이나 한국(연탄재 24%제외)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에 해당된다.

이들 가정쓰레기를 이루는 물질은 종이 및 판지가 30%로 가장 많으며 그외 부패성 물질 25%, 분진 15%, 유리 12%, 플라스틱

10%, 금속 6%, 작물 2%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1960년과 비교해 볼 때 산업의 발전과 생활수준의 증가로 제품 및 상품 포장지류의 폐기물(유리병, 플라스틱, 금속류, 종이 및 판지)이 1960년 16.5%에서 현재 33.5%로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그외 정보전달매체의 변화로 포장용외의 종이 및 판지 폐기량이 1960년 18%에서 현재 24.5%로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총 쓰레기 발생량도 1960년에 비해 약 1.6배가 늘어났다.〈표 1〉참조

쓰레기 소각전의 열량차원에서 물질구성비를 보면 유기성 물질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광물성 물질은 25%정도이고 수분함유율은 35%이다. 이들의 평균열량은 유기성 물질과 수분에 의해 차이가 있지만 대략 1300Kwh th/kg ~ 2300Kwh th/kg(1200~2000kcal/kg)으로 계산되고 있다.

이는 한국의 평균쓰레기 발열량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1372kcal/kg : 연탄재 포함) 이러한 열량은 가정쓰레기 1톤당 연료 120L, 또는 석탄 200kg에 해당되는 것으로 12시간동안 15km의 도로를 밟히거나 6000

〈표 2〉 프랑스 가정 쓰레기 처리현황(1994)

처리방법	처리공장 수	일일처리량 (톤)	관련주민 수	전체국민당 서비스율
소각(열회수 없음)	229	9,318	7,458,482	13.0%
소각(열회수함)	77	19,639	15,706,009	27.5%
Pyrolyse	1	200	110,000	0.1%
폐기물로 연료제조	2	133	146,886	0.2%
전체 열적처리	309	29,290	23,421,377	41.0%
선별 및 비료화	75	4,996	4,143,013	7.1%
선별 및 메탄화	1	210	156,000	0.2%
전체 생물학적 처리	76	5,206	4,299,013	7.5%
분쇄매립	108	4,430	3,680,190	6.4%
통제매립	173	10,104	5,786,847	10.1%
치밀한 통제매립	203	38,446	14,617,858	25.6%
전체 매립	484	52,980	24,084,895	42.1%
총 계	869	87,476	51,805,285	90.8%

톤의 물을 23°C 로 덥힐 수 있는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가정쓰레기 처리현황

프랑스의 쓰레기 처리방식은 크게 열적처리, 생물학적 처리, 매립처리로 구분짓고 있다.〈표 2〉 참조

1. 열적 처리

열적 처리는 일반적으로 소각처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열회수 시스템이 설치될 소각설비는 총 77개로 회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소각장(총 229개)보다 공장 수자상으로는 적지만 처리규모상으로 보면 2배가 많다. 연평균처리능력으로 분류하면 연 처리규모 40000톤 이상이 82%로 가장 많고(공장수로 보면 겨우 31%) 처리규모 20000톤에서 40000톤이 9%(공장수 30%), 처리규모

5000 톤에서 20000톤이 8%(공장수 27%) 그리고 5000톤 이하는 1%(공장수 13%)를 차지하고 있다.

위의 수치에서 보듯이 프랑스의 경우 아직도 하루 120톤 이하의 소규모 소각설비가 도처에 가동되고 있는데 이러한 저용량 또는 폐열회수가 없는 소각로의 가동율은 점차로 저하되고 있다.

반면 폐열회수 설비를 갖춘 중, 대형 소각로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985년 이후 15%의 폐열회수설비 보유율 증가) 현재 전체 쓰레기의 37%가 소각에 의해 처리되고 있으며 이중 27%가 에너지 회수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프랑스의 영토는 남한의 약 5.5배되는 면적으로 유럽에서도 국민 일인당 국토면적이 제일 넓은 나라지만 일찍이 연소기술의 발달과 소각에 대한 호응도로 1세기 전부터 소각

기술을 개발해왔다.

1992년 8월 18일 폐기물 수입금지법이 발효되기 전까지 독일 등지에서 연 800000 톤에서 2백만톤의 쓰레기를 수입하여 국경근처의 소각설비에서 처리하였다. 또한 인구 1천만이 넘는 파리의 쓰레기 처리를 위해

1990년 파리 Saint Quen에 연 처리능력 630000톤의 대규모 소각장을 건설하여 가동하고 있다.(시간당 28톤처리능력의 3개 소각 Line 설치)

2. 생물학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는 선별후 유기물질을 농작물용 비료로 만드는 것으로 현재 75개의 공장이 가동중이며 전체 쓰레기중 7.5%를 처리하고 있다.

이들 공장중 42개 공장은 완만한 처리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그외 33개 공장은 촉진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완만한 처리방식은 쓰레기 분쇄후 선별된 유기물질을 공장 근처 부지에 자연대기상태에 쌓아놓고 발효시키는 것으로 처리시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발효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물과 공기를 불어넣고 혼합하는 촉진식의 2일에서 8일보다 길고 공장부지 면적이 보다 많이 필요하지만 투자비에 있어선 촉진식보다 적다. 대략 1m³의 쓰레기로 0.15m³의 비료를 생산해내고 있다.

또한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쓰레기를 발효시켜 메탄을 발생해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얻기 위해 두가지 기술을 쓸 수 있다. 특수하게 밀폐된 장소에서의 조절된 발효 또는 대규모 매립장에서 가스의 회수, 매립장 내에 수분율을 높이 유지하여 발효에 의한 메탄생산을 기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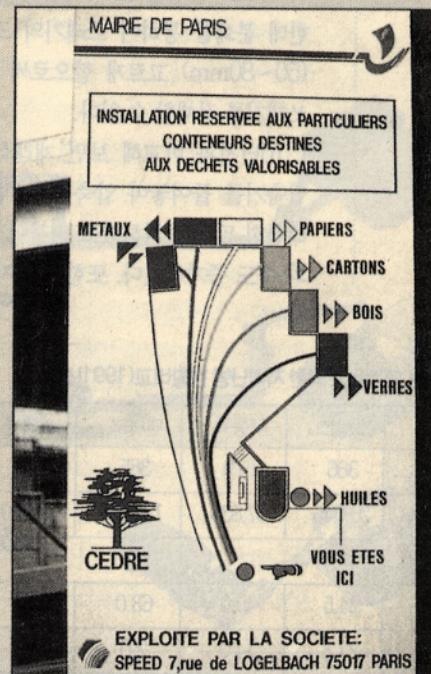
프랑스내에서는 한곳 밖에 가동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처리비, 설비의 주요 특성 등에

대하여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투자비가 높고 생산된 가스의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별한 연구과제로 그외 몇곳에서 실험가동중이기도 하다.

3. 매립처리

<표 2>에 의하면 매립에 의한 처리는 전체 쓰레기의 42.1%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648개에 달하는 일일 10톤 이하의 매립장과 쓰레기의 약 6%에 해당되는 불법 매립을 포함한다면 매립에 의한 쓰레기 처리 방법은 프랑스내에선 아직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전체쓰레기의 52%) 하지만 다른 유럽국가(영국 88%, 이태리 80%, 독

프랑스는 쓰레기 처리를
경제성과 재생시에 발생
될 수 있는 오염문제를
들어 소각에 중점을 두
고 있으며 소각열의 회
수라는 관점에서 소각을
재생의 카테고리에 넣고
있다.



〈그림 1〉파리의 Dechetteries

일 70%)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이다

프랑스는 3가지의 매립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전통적 매립방법인 단순한 통제매립 방식(총 발생량의 10.1% 처리)은 투자비가 적게 든다. 반면 쓰레기를 덮을 '자재'(모래, 자갈, 흙 등)의 양이 많이 필요한데 쓰레기 두께 2~2.5m에 '자재'는 두께 40cm 이상으로 하고 있다.

공공토목사업에 이용되는 특수장비 쓰레기분쇄압축기(Compactor)를 사용하는 압축통제매립방식(총발생량의 25.6% 처리)은 쓰레기의 매립시 매번 장비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압축시키므로 매립량에 비해 '자재'가 적게 소요된다.

사전분쇄를 시행하는 분쇄매립(총 발생량의 6.4% 처리)은 보다 복잡한 장비가 필요 한데 분쇄를 통하여 쓰레기의 크기를 작고(50~80mm) 고르게 함으로써 '자재' 없이 쓰레기를 적재할 수 있다.

10년전과 비교해 보면 재래식 매립장에 압축기를 들여놓아 압축통제매립장의 수가 대단히 많이 증가하였고 더불어 분쇄매립장의 수도 증가하였다. 또한 주거지에서 먼 외

딴지역에다 보다 효율적으로 매립할 수 있고 매립장의 수도 줄일 수 있는 자치단체끼리의 '쓰레기 통합적재 Center'를 증설하여 (현재 약 160여곳) 소규모 매립장이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다.

4. 쓰레기처리의 주민 서비스 상황

쓰레기 처리에 대한 우선적인 정책수행과 지속적인 기술개발에 힘입어 1970년 전체 주민의 30%에만 부여되었던 처리혜택은 현재 91%의 주민에게 주어지고 있다. 파리 및 파리근교에 현재 5개의 쓰레기 소각장이 가동 중인데 여기서 발생되는 전기(20,000Mwh)는 EdF(Electricite de France : 프랑스전력 회사)에 판매되어 파리시내 지하철운영에 사용되고 있다.

그외 발생되는 온수와 증기는 파리시내 10개 아파트중 1개 아파트에 난방 및 온수로 제공되고 있다.

선별수거를 위하여 18,000 Communes(주민 4천 7백만 해당)에 분류수거함을 설치하였고 현재 Dechetteries라고 하는 집단 분류수거지(자동차를 타고 들어가 유류, 종이, 판자, 유리, 나무, 금속을 준비된 분리함에 넣도록 하고 있음)를 파리시내에 6곳, 파리근교에 15곳, 그리고 프랑스내 큰도시에 480개를 설치하였고 설치장소를 계속 늘려 나갈 예정이다.

가정쓰레기 처리의 추이

서론에서 언급한대로 2002년까지 쓰레기 매립을 전면금지시키는 법이 발효중이며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쓰레기 원천 발생량을 줄이고 선별수거를 활성화하여 재생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프랑스의 구체적인 매립의 대처방안은 대부분을 소각 처리 한다는 것이다.

〈표 3〉 유럽국내 폐기물에 의한 지역난방 현황비교(1991년 기준)

	프랑스	구동독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지역난방수	366	619	365	314	406
설치용량(W)	20,045	37,835	15,000	28,310	16,130
사용되는 연료(%)					
석 탄	24.5	43.0	63.0	19.0	45.0
증 유	27.3	14.0	2.0	10.0	10.0
가 스	14.3	34.0	14.0	6.0	20.0
폐기물	21.9	9.0	12.0	9.0	1.0
기 타	12.0		9.0	56.0	24.0

이를 위하여 지금부터 2000년 사이에 대단히 엄격한 환경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160개의 소각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하지만 소각처리방법이 주중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향후 처리공장은 한기술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별, 재생, Compostage, 소각, 열회수, 최종잔재물 재처리중에서 발생쓰레기의 성격과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가장 적합한 처리방식을 효율, 비용, 후속사용처에 따라 선택 종합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종합처리장(Integrated Waste Management System)으로 발전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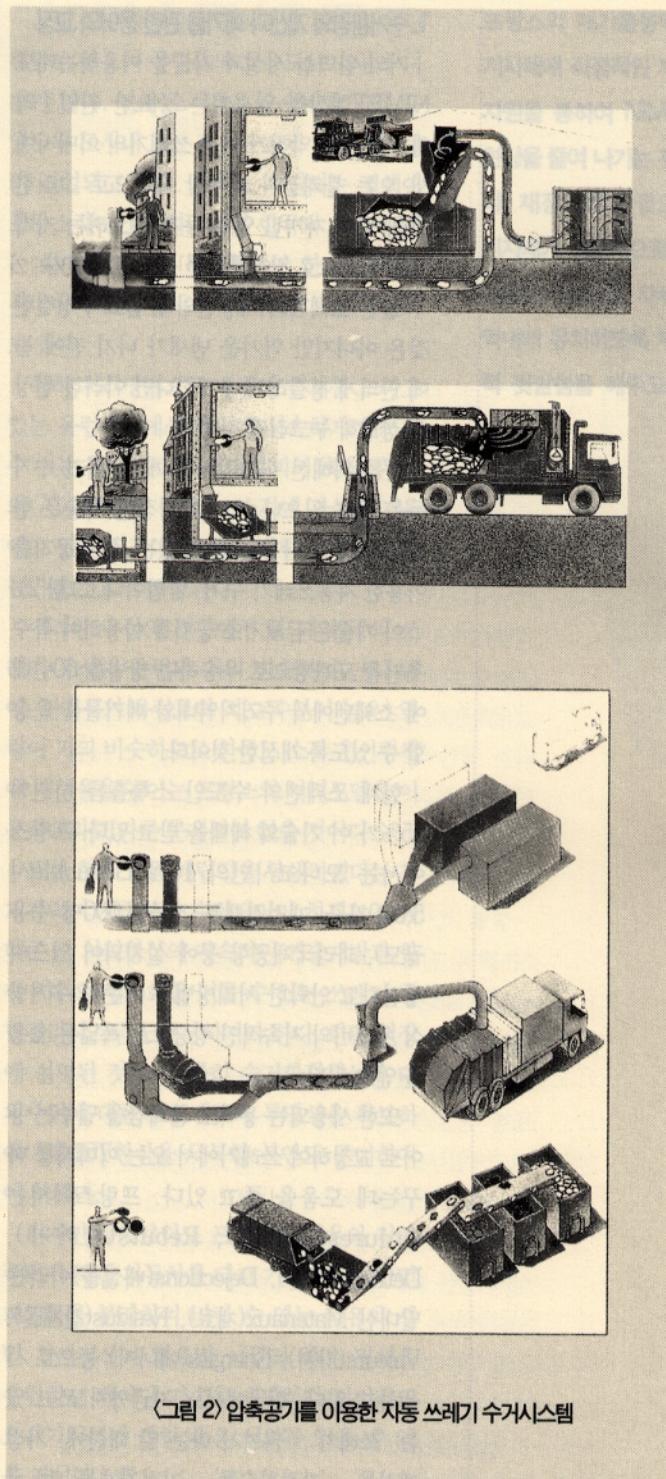
소각에서 발생되는 폐열은 그동안 지역난방과 전기생산에 사용하였으나 향후 회수에너지의 지역난방으로의 사용율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는 지역난방설비의 투자비가 매우 높고 감가상각기간이 길며, 그외 국산에너지(지열, 석탄, 비오마스)의 개발 활용이 늘어나고 있고 난방에너지에 대한 개인 선호취향이 다양하기 때문에 현지 건설되고 있는 소각설비의 대부분은 에너지회수로 전력생산에만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현재 18%의 프랑스 지역난방이 도시 쓰레기 소각공장에 의해 열공급)

프랑스의 NIMBY 현상과 해결책

프랑스내에도 한국보다는 덜하지만 NIMBY 현상이 심하다. 예를 들어 특수 및 최종 폐기물을 적재하는 Class 1 기술매립장이 포화상태에 달하여 현재 11곳중 3곳이 문을 닫아야 할 실정이나 새로운 시설장을 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NIMB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와 관련업체는 새로운 기술개발은 물론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림 2〉 압축공기를 이용한 자동 쓰레기 수거시스템

1. 수거환경의 개선과 폐기물 관련 용어의 교정

거의 완벽한 시설과 기술을 이용하는데도 NIMBY현상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는 바로 악취가 나는 쓰레기의 이미지에서 오는 불쾌감과 거부감 때문으로 그러한 것을 절대 자기집 옆에 두지 않으려는 자기 보호 현상으로 정신학에선 분석하고 있다.

물론 쓰레기가 사용전의 물질보다 청결한 것은 아니지만 역겨운 냄새가 나기 전에 눈에 안띄게 청결하게 수거한다면 이러한 현상은 상당히 누그러질 것이다.

이를 위해선 수거장비의 개선, 적기 수거 등을 들수 있으나 보다 획기적인 기술은 현재 유럽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압축공기를 이용한 자동쓰레기 수거' 방법이다.〈그림 2〉

이 기술은 금세기초 공기를 이용하여 특수 우편을 도관망으로 우송하던 방법을 60년대에 스웨덴에서 주거지역내의 폐기물을 운송 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현재 스웨덴의 수도인 스톡홀름 시민의 15%가 이 기술의 혜택을 받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모나코시민의 10% Grenoble시 5,000가구, 재정경제부 건물(6,000명 수용 규모), 파리국제공항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청결하고 안락한 처리방법과 기존의 수거방식 처리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폭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사용되는 용어도 불쾌감을 덜주는 용어로 교정하여 쓰레기에서 오는 이미지를 바꾸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Ordure(쓰레기), Rebut(찌꺼기), Detritus(폐물), Dejections(배설물)이라는 말대신 Materiaux(재료), Residus(잔재물), Valeurs(가치), Energies(에너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지금까지 쓰고 있는 '쓰레기', '찌꺼기'라는 말 대신에 '가정 폐기물', '가정회수물', '가정잔재물' 등 국

내정서에 맞는 말을 찾아내어 유통시켜볼만 하다.

2. 지역투자 및 대외주민 홍보활동 강화

프랑스의 폐기물정책은 자체에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통하여 NIMBY현상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재정자립이 필요한 자체가 자발적으로 폐기물처리설비를 자체영역내에 유치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 새로운 도시 폐기물 설비를 자체 관리지역내에 설치하고 그 지역 밖으로부터 유입되어오는 모든 폐기물에 톤당 5프랑씩(미화 약 1달러)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필요한 재정은 폐기물에 세금을 부과하여 확보하는데 매립장에 유입되는 모든 고체 폐기물 1톤당 25프랑(미화 약 5달러)을 징수하고 있다. 이는 1998년까지 40프랑(미화 약 7.5달러)로 점차적으로 상승시킬 예정이다.

이러한 세금은 ADEME라는 '환경 및 에너지 관리공단'이 거두어들이고 집행하는데 총액은 1994년 미화 약 75M달러에 달하며 'Waste Management Modernization Fund(폐기물관리 현대화 기금)'이라 불리고 있다.

정부는 지역투자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와 투명성에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폐기물 처리공장 설비 허가를 요청하면 행정부에선 의무적으로 업체에게 두가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나가 현장의 천연상태의 상황작성에서부터 설비설치후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오염물(폐연, 폐수, 폐기물, 소음, 악취...)의 근원, 성질, 심각성을 조사하고 이러한 설비의 단점을 제거, 한정 또는 보상할 수 있는 조치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영향보

고서(Impact Study)'이다.

다른 하나는 화재, 폭발, 독성가스 배출, 강이나 지하수로의 독성물질 배출 등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작성되는 '위험보고서(Danger Stager)'이다. 이를 보고서를 통하여 업체들에게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을 사전에 자체적으로 충분히 인식하도록 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료작성시 지역주민의 자문을 얻도록 하여 지자체의 의회와 주민 그리고 지역 단체에게 설비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배포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의 설비에 있어서는 공장의 견학, 기술소개 세미나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구심을 수시로 해소해주고 있다. 또한 1년에 한번 'Porte Ouverte(Open door)'을 실시하여 자연스럽게 주민이 가족 등과 함께 공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방안을 업체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맺음말

유럽의 각국은 나름대로 특징을 가지고 쓰레기처리에 대응하고 있는데 특히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차이점은 두드러진다. 독일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정책의 우선권을 재생에 두는 반면 프랑스는 경제성과 재생시에 발생될 수 있는 오염문제를 들어 소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때문에 독일은 소각을 재생의 관점에 두고 있지 않은 반면 프랑스는 소각의 회수라는 관점에서 소각을 재생의 카테고리에 넣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현재 유럽환경법을 제정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프랑스는 확고한 쓰레기처리 정책을 수립해놓고 있으며 주민들의 호응도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현재 소각장은 수송비를 줄일 수 있도록 도시내 또는 도시근교에 건축미를 살려 건설되고 있다. 한국도 수립되는 정책이 프랑스적이건 독일적이건 한국의 특성에 맞는 확고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유럽은 각국마다 그들 고유의 폐기물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처리방법으로 매립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유럽각국에선 매립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쓰레기 부피의 90%, 무게의 70%를 줄일 수 있는 소각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비중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유럽의 경향에서 볼 때 한국의 쓰레기 조성이 유럽과 거의 비슷하며(단지 종이, 판지류가 유럽보다 적고 수분이 높은) 열량이 거의 비슷하므로 한국도 소각 우선정책에 재생율을 높이는 프랑스의 처리모델을 이용하더라도 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이다.

또한 향후 모든 매립장을 봉쇄하겠다는 장기전략이 지금부터 수립되어야 하겠고 이에 따른 각 처리방식의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함께 처리의 합리화를 이를 수 있는 쓰레기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상하여야 한다. 한편 전장에 설명된 것 같은 특히 수거환경개선과 대외주민에 대한 프로젝트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NIMBY현상을 극복할 복안도 준비하여야 하겠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주민이 직접 자동차를 타고 가서 모아놓았던 폐기물을 분리하여 버릴 수 있는 여유와 시민 참여정신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수립하고 뛰어난 기술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쓰레기처리에 대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

프랑스의 폐기물정책은
지자체에 직접적인 재정
자원을 통하여 NIMBY
현상을 줄여 나가는 것이
다. 재정자립이 필요한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폐
기물처리설비를 자체영
역내에 유치하도록 제도
적 티켓침을 해주고 있
다.